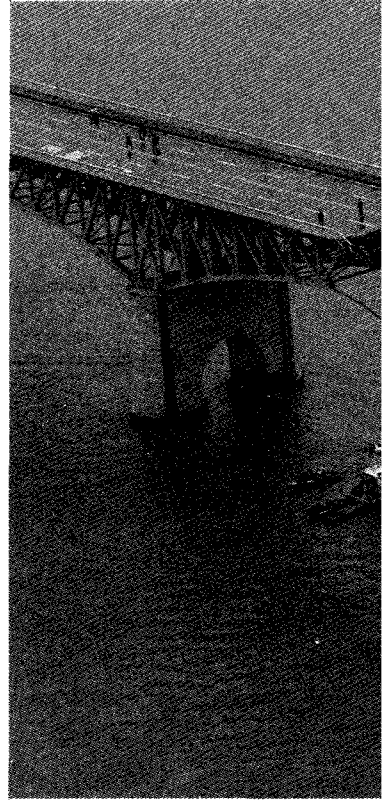


# 堅實施工을 위한 汎 建設人의 意識改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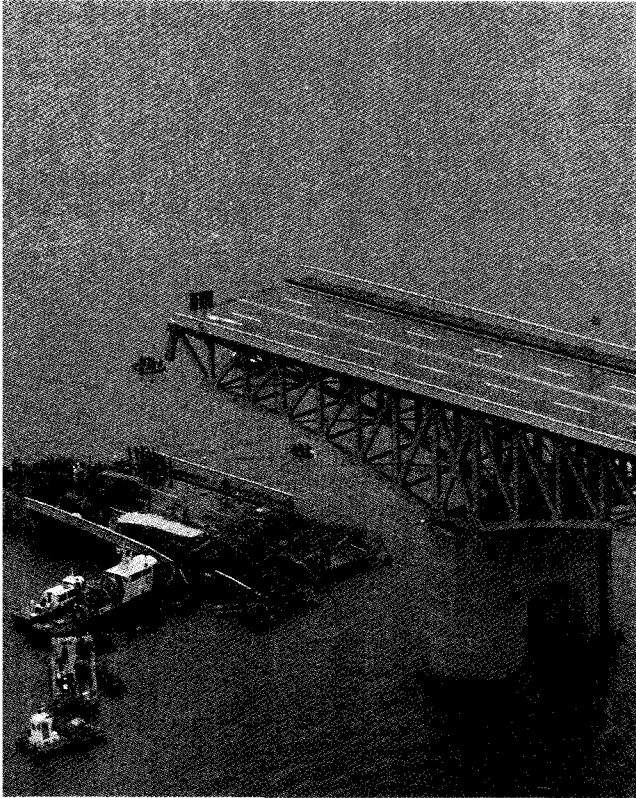
박철림/(주)대우건설기술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에서 부실이라는 단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의 각 단계에 종사하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유지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가 각각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86년 8월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국가적인 준공식을 치르기 위해 천안에 신축 중이던 독립기념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建設工事의 不實施工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建設業의 長期 發展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를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委員會가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87년 2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건설업의 문제점으로서, 장기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육성책과 발전 시책이 없고 각종 제도 및 운용이 불합리하며 건설업계의 자주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고, 이의 해결 방향으로서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철저한 시공 그리고 감리체계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建設技術管理法이 새로 제정되는 등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 강구되어 한동안 부실공사가 없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행주대교 붕괴사고, 팔당대교 붕괴사고, 창선대교 붕괴사고, 구포역 철도 지반 침몰사고,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여러건의 지하철 공사장 사고, 그리고 최근의 성수대교 상판 붕괴사고까지 대형 건설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다시한번 건설공사의 부실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 관련부처는 연일 관계부처 회의를 갖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얼마 전 建設協會, 정부 관련부처, 학계, 건설업계, 언론계, 설계, 감리업계, 건설연구기관 등 건설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모인 「堅實施工을 위한 汎 建設人의 意識改革」에서는 다

음과 같이 부실시공의 원인과 대책을 정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不實工事의 主要原因 明示

공사부실의 원인은 한동안 시공자의 잘못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그동안 감사기관 또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검토한 결과 정부의 建設施策, 調査, 設計, 入札契約, 施工, 監理, 監督, 檢査, 維持管理 등 모든 분야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具體原因

- 1) 정부의 공급우선 정책
- 2) 정부의 저가구매 정책
- 3) 설계, 자재, 기능인력, 시공 등 공사 제 요소 부실
- 4) 각종기준, 검사, 감독기능 부실
- 5) 건설업체 의식문제

### 3. 現在 講究 中인 政府側 對策

- 1) 건설사업 추진 절차의 법제화
- 2) 현장과 복합되는 설계 의무화, 제재규정 신설
- 3) 설계심의 철저
- 4)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
- 5) 附帶入制
- 6) 정부입찰단가 폐지
- 7) 시공계획 평가제도
- 8) 대형공사 입찰시 비가격 요소 평가
- 9) 책임감리제
- 10) 부실공사 업체 체벌 강화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이 건설의 각 단계 즉 계획, 설계, 조사, 입찰계약, 시공, 감리, 감독, 검사,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크고 작은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원인을 찾아내어 책임소재를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무조건 건설회사의 잘못된 것처럼 비난을 해 왔고 건설회사는 매번 국민앞에 속죄양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각 단계의 관계자들이 책임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또 막연히 總體的 不實이라고 일괄해도하면서도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려 온 우리의 책임의식 불감증때문은 아닌지?

여기서 감사원에서 1986년 1월부터 1993년 6월까지 3657건의 공사를 감사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단위 : %)

	구 분	토 목	건 축	실 비	계
1	계획 및 제도 부정적	15.1	9.8	14.0	13.8
2	설계 "	44.1	38.4	37.2	40.9
3	계약 "	1.9	11.3	8.9	7.8
4	시공 "	26.1	30.1	22.6	25.8
5	시공관리 "	6.1	5.8	11.2	7.7
6	기 타	2.7	3.8	6.1	4.0
		100	100	100	100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가장 큰 원인은 설계로서 40.9%이며, 시공이 25.8%, 계획 및 제도가 13.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통계를 보면 설계 40%, 시공 40%, 감리 20%로 보고되어 있다. 결국, 부실시공의 중요 원인은 설계와 Engineering, 그리고 시공의 잘못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측면도 중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부실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서두에서 살펴본 '87년 위원회 보고사항과 '94년 9월 간담회 내용요약에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사고와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시공의 최대 원인인 설계와 Engineering의 질적향상을 빨리 이루어야 할 것이며, 시공품질 관리와 제도의 개선,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감리의 質的水準 및 能力向上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대책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건설시공의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설 관계자들의 意識改革이 先行되어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실제 적용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適當主義나 短期業績

主義가 깔려있다면 좋은 결실 즉, 건설한 시공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발주자는 가격 뿐아니라 비가격적 측면 즉, 기술,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최적격자에게 공사의 제 단계를 맡겨야 할 것이며, 설계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뿐 아니라 施工性, 維持補修性까지 고려한 설계를 해야하며, 시공자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영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건설기능공들의 匠人정신을 북돋우어주어야 한다. 또한,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소소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 공법상의 문제 등 설계와 시공을 통찰하는 수준높은 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이와같은 건설관계자 전체의 意識轉換과 堅實施工에 대한 意志確立이 우리 건설산업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 바탕위에 앞서 살펴본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만 건설시공이 보다 빨리 정착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에서 부실이라는 단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의 각 단계에 종사하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유지관리자 등 모든 관계자가 각자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부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는 지속적인 研究開發 投資로 공사의 品質向上과 技術開發을 통하여 질적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우리 건설의 총체적인 구심체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堅實施工은 汎 建設人的 技術을 바탕으로 한 意識改革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